

不況克服 爲한



金 允 基 會 長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새 歷史를 創造하게 될 希望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激變하는 國際情勢와 世界的 經濟
不況이 몰고 온 어려운 여건속에서 많은 努力을 傾注하여
왔습니다.

人類福祉向上을 爲한 各種 科學技術의 創出 特히 重化學
工業의 育成 및 生産技術의 開發革新 그리고 새마을 技術
奉仕 活動으로 寄與한 業績은 높이 評價되고 있다 하겠습
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主要課題들이 未解決된 채 宿題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周知하는 바와 같이 에너지 및 食糧 등 資源危機克
服을 爲한 新技術의 開發은 그중에서도 가장 時急히 解決
되어야 할 課題로 擡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顯案問題들은 올해도 世界的 經濟不況의 直接的인 要
素가 되어 그 餘波는 아직도 極甚하며 앞날을 豫測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見解에 따라서는 多少 緩和될 幾微가 있다고 하지만 量
的인 限定性때문에 이는 一時的인 狀況 湖塗에 不過할
뿐이며 恒久的인 對策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根本的인 解決策은 오로지 科學技術의 開發革新과 振興
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多幸하게도 우리의 科學技術은 近年에 와서 相當한 基盤
이 造成되었습니다.

더우기 維新憲法 第123條에 「經濟發展을 爲한 科學技術
은 暢達振興되어야 한다」고 明文化된 以後 科學技術界의
活動像은 括目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科學技術人이 지금 總和를 이루어 赫赫한 功績을
쌓게 된 것도 이러한 國家政策의 配慮와 與件造成에 힘입
어 不斷히 努力한 結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이 底力을 最大限으로 活用하며 各種 어
려운 問題들을 解決하고 國家發展에 寄與하여 科學技術人
의 矜持를 또한번 誇示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어 疑心치
않습니다.

지금 推進되고 있는 小溪谷發展, 泥炭低質炭開發을 비롯
潮力, 太陽에너지, 風力등의 多角的인 研究努力은 賦存에

科學技術 創出 돼야

너지 資源의 開發極大化를 實現시킬것으로 期待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戰略的 産業技術의 開發普及으로 오늘의 經濟不況을 克服, 80年代 100億弗 輸出 1,000弗 所得의 目標達成을 促進시키는 한편 이미 展開되고 있는 產學協同事業의 活性化를 加速시키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는 產業界의 높은 要求度에 따라 그 동안에도 많은 業績을 쌓은 바 없지 않으나 올해는 더욱 奮發하여 經濟安定의 基調를 鞏固히 하는데 主役이될 것으로 確信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또 새마을技術奉仕活動이 本軌道에 오를 것으로 展望되고 있습니다.

農漁村의 近代化와 所得增大를 促進시키기 爲한 우리 科學技術人의 執念은 全國 9個道에 道새마을 技術奉仕團을 組織한 바 있습니다. 崇高한 奉仕精神과 使命感으로 構築한 이 組織은 散發的이고 微微하게 展開되어 왔던 새마을 技術奉仕活動을 體系的이고 組織的이며 持續的으로 發展시켜 效果를 擧揚시키는 方向으로 進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全科學技術人의 宿願事業이었으며 年次事業의 하나인 科學技術會館을 모든 會員團體 및 學會가 活用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地下 1層, 地上 9層의 骨造工事와 地上 4層까지의 內粧工事만을 마쳐 科技總과 몇몇 會員이 使用하고 있는 이 會館을 年內로 5層까지 모든 工事を 마칠 計劃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속히 當初計劃대로 竣工을 보아 모든 會員이 共同活用하여 우리나라 科學技術振興에 더욱 拍車를 加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科學技術의 水準은 그나라 國力의 尺度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使命은 莫重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항상 國民福祉를 爲한 科學技術을 創出하고 國家發展을 誘導하는 使徒로써 臨해 온것입니다.

올해도 이 崇高한 精神과 叡知로서 倍前의 業績을 쌓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政府와 產業界, 그리고 會員여러분의 聲援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乙卯年 새해를 맞아 科學技術人의 幸運과 各家庭에 萬福이 있으시기를 衷心으로 祈願하는 바입니다.